

2026년 8월 21일(금) 구역예배 자료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사도행전 4장 13~22절

- (1)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가 96장을 부릅니다. (2) 구역 식구 중 한 분이 기도합니다.
(3) 사도행전 4장 13~22절(신192)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4)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5) 찬송가 436장을 부르고, 봉헌한 이후 봉헌기도 합니다. (6)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구역예배를 마칩니다.

<인터넷 참조> <http://www.pckyesan.or.kr>으로 접속, 8월 16일자 주일예배 말씀

<생각하기>

우리는 살면서, 내가 알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전과는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놀라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이상히 여기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에다우마존(ἐθαύμαζον)’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말인데, 영어로는, ‘astonish’, ‘marvel’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크게 놀라다, 깜짝 놀라다, 경탄하다’ 이런 뜻입니다.

<설교의 요약>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심문을 받는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상하게 여긴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자신들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4장 8절은, 처음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말하기 시작할 때의 모습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담대하게 말함’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로, ‘파르레시안(παρρησίαν)’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모든’이라는 뜻을 가진, ‘판(παν)’이라는 단어와, ‘연설’이라는 뜻을 가진, ‘레시스(ρησις)’라는 단어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말을, 거리낌 없이 모두 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가문이 장악하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는, 진리와 진실을 규명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입지를 뒤흔드는 사람이 있으면, 율법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차 없이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 좋은 예가,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한 것입니다.

일단 그 법정에 소환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것도, 자신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거리낌 없이, 자신들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상하게 여긴 또 다른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을 무식한 자로 알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이고도 권위 있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은,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범인(凡人)’은, ‘평범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문맥에 따라서는, 율법의 자세한 부분을, 배울 길도 의지도 없었던, 평민 계층을 비하하는 의미로, ‘무식쟁이’, ‘촌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성경》은, 이 구절을,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학문도, 율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인용하면서, 설득력과 권위가 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경험을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적인 인물로 여겨, 십자가 사형에 처하도록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은,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한 일이, 사회적으로 잘못된 일이어서, 금지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한 것이고, 불이익을 준 것이며,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이어서, 금지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인간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려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으로 오사,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에게,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본 일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마땅히 다짐하고 고백해야 하는 선포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사탄이 부추기는 세상의 공격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확고한 각오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역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기〉

1. 세상의 권위나 두려움에 눌려, 바른 말을 하지 못한 경험, 반대로, 담대하게 옳은 말을 하거나, 내 신앙을 고백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성령님! 저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잘 대처하며,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과,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여, 인간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우리 구역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